

The Images

김서울

Seoul Kim

김서울의 회화는 붓과 물감, 바탕천과 틀, 액자와 같은 회화의 물리적 단위들이 화면 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되짚어가며 그 과정 자체를 작업으로 삼는다. 대표 연작 'After De Kooning'은 올드 홀랜드사의 유화 물감 168색을 흔색 없이 동일한 분량으로 사용해 화면을 채운다는 자신만의 조건에서 출발한다. 추상표현주의 거장의 격정적인 붓질을 참조점으로 삼되, 그 몸짓을 색채의 산술적 배분이라는 엄격한 체계 안에 가두는 것이다. 즉흥처럼 보이는 표면 아래 정교한 규율을 심어놓는 이 역설적인 태도가 그의 회화를 지탱하는 핵심 문법이다.

이러한 태도는 'Scalar and Vector' 연작으로 이어지며 더욱 정교해진다. 역학에서 자연계를 보는 '벡터(Vector)'와 '스칼라(Scalar)'의 두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스칼라는 일정 양을 지칭하는 단위로 온도, 무게, 거리, 시간 등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고 벡터는 크기에 방향을 더한 것으로 변화, 즉 '운동성'을 의미한다. 이전 작업이 색 배열과 붓 사용에 의한 형태 실험에 집중했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 붓 터치의 속력(힘)과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도입해 동사형의 화면으로 옮겨 간다. '스칼라'인 물감이 '벡터'를 만나 역동적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색과 형에 운동성이 더해져 한층 자유롭고 리듬감 있는 화면과 색, 형, 붓질의 조화가 이뤄내는 미적 쾌감이 이 시리즈의 특징이다.

결국 김서울이 반복해서 묻는 것은 회화라는 오래된 매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는 선대 작가들의 손짓, 미술용품 브랜드의 규격, 그리는 행위의 운동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각 구성 요소가 본래의 기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해석이 담긴 화면으로 완결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시각 예술이 빚져온 역사적 참조와 관습을 현재의 언어로 다시 쓰기 위한 스스로의 법칙을 하나씩 세워간다.

국민대 회화과 학사를 졸업했다. 프리즈 하우스 서울(2026), 디스위켄드룸(2024, 2021), 계명대 극재미술관(2024), 아트딜라이트(2021, 2019)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주요 전시 기관으로는 모란미술관(2026), 서울대학교미술관(2025), 교토 츠타야 서점(2024), 아난티 컬처클럽(2023), 기체(2023), BOL갤러리(싱가포르, 2023), IBK 아트 스테이션(2022), 페리지갤러리(2021), 아미미술관(2021) 등이 있다. 2024년 제 1회 계명극재회화상을 수상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박서보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미지 제공 : 디스위켄드룸

〈Scalar and Vector No.8 (small ver.)〉
흑단화된 참나무, 유성으로 밑칠된 린넨 캔버스(거친 텍스처)에 유채
44.4×35.2cm 2024



왼쪽
〈Filbert Family No.2〉
면 캔버스(중간 텍스처)에 몰딩
페이스트, 스탠드 오일, 유채
172×172cm 2019

오른쪽
〈After De Kooning No.11〉
면 캔버스(중간 텍스처)에
168가지 유화 물감
172×172cm 2018







왼쪽
〈Scalar and Vector No.21〉
유성으로 밑칠된 황마 캔버스에
유채 172×172cm 2026

오른쪽
〈Scalar and Vector No.9〉
투명하게 밑칠된 린넨
캔버스(매우 고운 텍스처)에
무지갯빛의 아크릴릭, 스탠드
오일, 유채 172×172cm 2024